

지역 소식통

완주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보급

완주군이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보급했다. 군은 등화장치가 미부착된 트랙터 및 경운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대해 등화장치 150대를 무상으로 설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일반차량에 비해 주행 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되지 않아 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이에 군은 매년 사전 예방차원으로 등화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등화장치를 무상 지원받고 싶은 농기계 보유 농가는 매년 1월에 읍·면사무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기자

완주드림스타트, 디자인 창의교육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22일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체육관에서 창작과 예술·디자인 분야에 관심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창의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고비용 때문에 배울 수 없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북대학교 디자인제조공학 학기훈 박사가 강사로 나서 캐릭터 디자인의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아동들과 자연물을 의인화해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디자인 창의교육은 상상력을 결과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이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이 기초능력 함양, 창의력 개발, 자유로운 발상 및 사고의 전환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농기센터, 종자생산교육 개강식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에서는 종자생산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민간 육종연구단체에 필요한 기초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생산 단계교육 과정을 24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교육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번 개강식에서는 교육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유남희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종자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번 교육 과정은 종자, 작물육종, 작물재배, 병충해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농업인 및 시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9월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4시간씩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와 완도군이 세계로 뻗아가는 해양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24일 완도군청에서 이건설 김제시장, 김복남 김제시 부의장, 신우철 완도군수, 박종연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 해양도시 도약 위한 동반자 구축

## 김제시-완도군, 해양산업·인적네트워크 협조체제 자매결연 맺어

김제시와 완도군이 세계로 뻗아가는 해양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24일 완도군청에서 이건설 김제시장, 김복남 김제시 부의장, 신우철 완도군수, 박종연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주요 협정내용으로는 해양산업, 인적네트워크 협조체제 구축을 비롯한 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체결되었다.

두 도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지역의 관광자원, 특산물 등에 대한 적극적 교류를 추진해나가는 등 상호 상생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공동발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완도군과 김제시는 851년에 해상왕 장보고 피살 후 정해진이 폐지되고 완도에 살았던 주민 10만여명이 김제(벽골진)로 강제이주 당하여 지금의 벽골제를 축조했던 역사적 인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완도군은 전국 최대의 웰빙 수산물 생산지(410톤/전국8%)를 보유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상왕 장보고의 본거지 청해진 유적지와 5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국제완도무역항 등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해양, 관광산업의 선진도시이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완도군이 선도

적으로 해조류의 세계시장을 향하여,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자매결연 협정을 계기로 양도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실질적인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동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새만금의 중심도시인 김제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농기센터, 학교4-H회 과제활동 '호응'

## 4월 농산물 수확·가공 체험·교내 꽃모 재배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에서는 김제시 미래농업의 주역들인 초·중·고 11개교 학생4-H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농심배양 능력을 위한 과제 학습활동을 지난 4월 8일부터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교4-H회 과제활동은 교내의 특별활동으로 학생4-H회원 및 지도교사에게 체험기회를 부여해 학생회원의 화합과 협동심은 물론 성취감을 유발시키고 개인별 잠재능력개발과 자신감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동안 회원들은 4-H이념(지(智)·

덕(德)·노(勞)·체(體))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4월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과 교내 꽃모 재배 과제학습활동을 펼쳤고, 학생들의 정서 안정 및 직업 체험을 위해 도어아트 발포세라믹, 필승 배양토 등을 활용한 다육공예를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교육장에서 추진하였다.

앞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학생 4-H 회원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장인 전북 학생4-H회 회원대회에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4-H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 할 예정이며 학교 4-H 과제이수교육, 전통문화탐방, 농촌문화현장 체험 등 실습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농심을 배양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친밀감과 협동심을 키워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4-H활동을 통하여 4-H이념을 생활화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행동양식을 함양,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배워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건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새로운 4-H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프리포즈축제 홍보 나서

## 군청 댄스동아리인 'A' it Pink 홍보물 배포 등

완주군이 오는 5월 13일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완주 프리포즈축제 홍보를 위해 23일 모악산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군청 댄스동아리인 'A' it Pink의 프리포즈 플래시몹 공연과 함께 프리포즈축제 홍보물 배포, 프로그램 참가신청 등 전북투어 패스카드 홍보 활동으로 이뤄졌다.

24일 군에 따르면 완주 프리포즈축제는 모악산과 경각산, 구이저수지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모악산 일원을 관광평소화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모악산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을 주행사장으로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리포즈'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커플들의 달달한 사연을 받아 선정하는 드레스 쇼는 SNS와 방송 홍보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커플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사랑의 세레나데 ▲최강커플 게임미션 '좋다고 말해' ▲연애특강 토크콘서트 ▲두근두근 OST 음악방송 ▲미혼남녀들을 위한 사랑의 오작교 등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두근두근 사랑패치 ▲재미로 보는 타로 ▲은행알 사랑간식 ▲작은 결혼 체험관 ▲커플간식 만들기 등 커플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완주=이종복기자

# 선거 종사 시군구 공무원, 알바 취업에 '으르렁'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투·개표사무 종사원으로 참여하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알바" 취업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참여투개표 종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직원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장 부무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투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시군구 공무원을 알바로 취업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사전투표 모의실현(2회 평일) 5.4(사전투표일, 평일)에 시군구공무원이 사전투표종사원임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데 부무명령 없이 나간다면 무단이탈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논리가 모순

이라는 지적이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남기)은 삼급단체인 전국시군구연맹(위원장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등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개선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남기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장은 "현장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시초소근무, 산발비상근무, 선거업무종사 등 본인의 업무 외에 힘들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제도로 관행이라는 답으로 통제하려는 것에 공무원단체와 연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